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한캠USA 동역자 여러분께,

지난 며칠 동안 겨울비가 한껏 내리더니, 제법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 어느덧 2018년도 마지막 한 장의 달력을 남겨두고 있어, 한 해 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데, 가장 제 마음에 선명하게 남는 글자가 '감사'라는 단어였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귀한 목사라는 직분을 주시고, 늦었지만 해야 할 일을 하고자 하는 열심도 주셨으며, 연약한 저에게 함께할 능력있는 동역자까지 붙여주심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게다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큰 딸의 결혼식까지 치르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요즈음, 저희 '한캠USA'의 사역준비로 무척 마음이 분주하고 무겁습니다. 로컬 한글캠프의 다음학기 준비와 함께, 다가올 겨울 해외캠프 준비는 이제까지 매년 두 차례씩이나 실시해온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팀원 구성과 캠프 준비 등은 항상 저에게 부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저희 '한캠USA'에 새로운 분들이 운영위원으로 협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희 사역에 관심을 갖고 기도로 동역해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는 세계 곳곳에서 동역자들이 저희 '한캠' 사역을 기억하고, 협력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묵상 본문(역대하 26:16-23)은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뭔가 커지고 잘될 때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의 강성대국을 꿈꾸며 기대를 모았던 웃시야 왕이, 교만이라는 덫에 걸려 나병으로 초라하게 생을 마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며 처음에는 믿음과 기도 그리고 열심으로 시작하지만, 조금 잘될 땐 초심을 잃고 감사가 없는 일뿐으로 끝을 내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한캠'의 동역자는 물론 특히 저희 운영위원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그리고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큰 딸(보배)의 결혼식에 보내주신 사랑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디 계속해서 저희 가족의 변함없는 헌신과 '한캠USA'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라며...

임철현 올립니다.

HanGeul Camp USA
1661 N. Raymond Ave. #145
Anaheim, CA 92801

PS.: 기도제목입니다.

- 1) 이제는 본격적으로 2019 겨울 해외캠프를 위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팀원 구성의 마무리와 사역준비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 2) 내년 1월에 시작될 로컬 한글캠프(애나하임, LA)를 위한 교사 확보를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애나하임한글캠프는 1월15일(화)에 시작됩니다. LA캠프는 잠정적으로 1월17일(목) 저녁부터 LA비전교회(207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 3) 저희 '한캠USA'와 연결되어 실시되어 온, 수요일 아침 '느새' 예배 모임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모임은 전도를 위한 특별 모임으로 기획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저희 큰 딸의 결혼에 기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